



## 인도·베트남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4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 신흥국 전략

## 이슈 업데이트: 인도는 조선, 베트남은 원전과 철도

### 양국이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인도와 베트남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대표적 신흥국이지만, 최근 지정학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제고와 성장 기반 안정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순방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한국과 인도는 조선, 금융, AI, 방산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5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여러 협력 의제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할 분야는 조선이다. 인도는 교역량의 약 95%, 금액 기준 약 70%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자국 선대의 운송 비중은 5% 내외에 그쳐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해운서비스 지급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충격이나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해상 물류의 안정성이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도 안고 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은 이러한 약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인도 입장에서 조선업 육성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 진흥 차원에 머무는 사안이 아닌, 해상 물류 안정성 제고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나아가 경제안보 역량 확충과 직결되는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조선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공식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결합될 경우 인도는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상 물류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2025년 또 럼 서기장 방한 당시 합의한 2030년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원전 건설 프로젝트 관련 MOU 2건을 포함해 전력·인프라 분야에서 총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향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베트남 정부가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원전과 철도로 판단된다. 베트남 정부 추산 연간 전력 수요 증가율은 10~12%로, 산업생산 증가율과 GDP 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력난은 제조업 생산 차질과 성장 둔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진 베트남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는 필수다. 이에 정부는 최근 원전을 재도입하고 2030년 원자력 발전소 완공 및 가동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철도 인프라 역시 베트남이 아세안 내 핵심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제조업 확대와 교역 증가로 내륙 및 국경 간 물동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남북고속철도를 포함한 국가 철도망 확충을 주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에서 철도 등 인프라 프로젝트 집중 추진 의지도 강조한 바 있다.

인도와 베트남이 한국과 추진하는 협력 사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집행이 수반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단기간 내 가시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시 관점에서도 이번 회담이 당장의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인프라 관련 업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도표 1. 한국-인도 공동언론발표 주요 내용

한국-인도 공동언론발표 주요 내용	
양국 간 경제협력 고도화	-양국 간 첫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한-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가속화
한국-인도 간 장점이 결합된 전략산업 협력 확대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조선 시장 기회 발굴 -세계 3위 규모인 인도 금융시장 내 한국 금융기업 진출 기반 마련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K컬처의 해외거점이 될 '뭄바이 코리아 센터' 조성 -상대국 방문 시 자국 QR 결제 시스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양국 국민 편의 증진

자료: 청와대, 하나증권

도표 2. 한국-베트남 공동언론발표 주요 내용

한국-베트남 공동언론발표 주요 내용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 공고화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달성 위해 교역·투자 협력 호혜적으로 발전 -농축산물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 위해 긴밀히 협력 -철도 인프라 개선 협력 -신도시, 신공항 사업 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공동연구 및 연구 인재 양성 지원 협력 강화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 통해 양국 간 AI,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하고 한국 IT 기업 진출 확대 도모

자료: 청와대, 하나증권